

## [ 종합·해설 ]

## 중부지방 물폭탄



연 이를 쏟아진 폭우에 양양~오색 구간 한계령 진입도로가 유실돼 고립상태에 빠졌던 주민과 관광객이 잠시 비가 주춤했던 사이에 끊어진 도로를 타고 양양읍내로 탈출하고 있다.

/NPOOL 중앙일보=변선구기자

## 강원 이틀새 500mm…주택 1,300여채 침수

12명 사망·24명 실종…피해 눈덩이

남한·임진·한탄·동강 등 범람 위기

지난 15일부터 강원지역에 최고 500mm가 넘게 내린 집중 폭우로 16일 밤 늦게까지 강원·서울·경기지역에서 수십 명의 사망·실종자가 나오고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한반도 중부권이 아수라장이 됐다.

안양천 등 경기, 강원지역 주요 하천이 범람하면서 도심이 물바다로 변했고, 주민들에게는 긴급대피령이 내려졌다. 또 도로와 철도가 끊기고 항공기가 결항되는 등 교통대란이 빚어졌다.

피해가 가장 심각한 강원지역은 물론, 16일 새벽부터 서울·경기·충청·경북 등 지역에도 200mm 내외의 비 폭탄이 퍼부으면서 중부권 전역이 호우 공포에 휩싸였다. 이날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 전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으며, 남부지역에도 호우특보가 발령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는 16일 오전 10시 30분을 기해 국가위기경보를 발령,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에 '경계(Orange)'경보를, 그 외 지역에 대하여는 '주의(Yellow)'경보를 발령했다.

◇인명 피해=16일 오후 5시 현재 12명이 숨지고 24명이 실종된 것으로 잡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지역이 피해가 가장 커졌다. 모두 11명이 숨지고 21

명이 실종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무방비 상태에서 산사태로 매몰되거나 계곡물이 불어나 실종됐다. 가평, 양평 등 경기 동부지역에서도 1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집수·유실 및 재산 피해=이날 오후 현재 강원지역에서만 가동 1천316채가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이재민도 4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인천시민공원도 2002년 이후 4년 만에 전 구간이 물에 완전히 잠겼고, 청계천 산책로도 침수돼 전날부터 계속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다.

김포공항에서 지방공항을 오가는 항공기도 수십편이 결항됐다. 또한 인천에서 서해 5도를 오가는 여객선 13개 항로 중 백령도와 연평도 등 3개 항로의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하천 범람 위기=남한강, 한탄강, 임진강, 영월동강 등 중부권 주요 하천들이 대다수 범람 위기에 처하는 비상 사태가 벌어졌다. 경기 고양시 일대도 임진강·한탄강·한강 등 경기북부지역 주요 하천 수위가 상승에 따라 267가구 주민 567명이, 연천군 일대는 75가구 188명의 주민이 안전지대로 대피했다.

◇도로·철도 침수, 항공기·여객선 두 절=영동고속도로와 국도 10개 노선 59개소에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도로가 물에 잠겼다. 정선선 구절리~증산 구간과 오대천 교량 노반이 유실돼 열차 운행도 중단됐다.

태백선 영월~청평포간 동강 교량의 수위 상승으로 인근 석학역의 침수가 우려됨에 따라 철도공사는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열차를 태백선 대신 영동선으로 우회시키고 있다.

서울지역도 올림픽대로 염천IC~잠실 대교 양 방향과 진입로 전체, 강변북로 서울숲~성산대교 북단 양 방향과 진입로 전체,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용비IC 양 방향과 진입로 등이 통제됐다.

16일 오전 서울은 광구 응암1동 영락중학교 축대가 붕괴되면서 인근 빌라로 토사가 유입돼 주민 100여명이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한강시민공원도 2002년 이후 4년 만에 전 구간이 물에 완전히 잠겼고, 청계천 산책로도 침수돼 전날부터 계속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다.

김포공항에서 지방공항을 오가는 항공기도 수십편이 결항됐다. 또한 인천에서 서해 5도를 오가는 여객선 13개 항로 중 백령도와 연평도 등 3개 항로의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하천 범람 위기=남한강, 한탄강, 임진강, 영월동강 등 중부권 주요 하천들이 대다수 범람 위기에 처하는 비상 사태가 벌어졌다. 경기 고양시 일대도 임진강·한탄강·한강 등 경기북부지역 주요 하천 수위가 상승에 따라 267가구 주민 567명이, 연천군 일대는 75가구 188명의 주민이 안전지대로 대피했다.

◇도로·철도 침수, 항공기·여객선 두 절=영동고속도로와 국도 10개 노선 59개소에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도로가 물에 잠겼다. 정선선 구절리~증산 구간과 오대천 교량 노반이 유실돼 열차 운행도 중단됐다.

/체험증기자 chae@kwangju.co.kr

## 中서 수증기 유입

## 장마전선 만나 폭우

서울과 경기도 일대 집중 호우가 쏟아진 이유에 대해 기상청은 갖가지 기상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와, 중부지방에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과 충돌했다.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중부지방 상공에는 거대한 비구름이 끊임없이 만들어졌다.

장마전선 가운데 세력이 강한 고리부분도 이 지역에 걸쳐 있어 많은 비를 뿌리게 했다. 제4호 태풍 빌리스(BILIS·필리핀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페슬'을 뜻함) 또한 집중호우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강원도에는 중국에서 유입된 막대한 수증기가 태백산맥에 가로막히면서 거대한 호우구름이 형성됐다. 이 때문에 강원도 일부 지방에는 시간당 최대 50~1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승배기자 lsb54@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문 채택후...

北 “미사일 발사 계속”  
5자회담, 대안 급부상

'개점휴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히려 남북 경협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미국과 일본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으나 북한에 연거푸 외면당한 중국이 '1회에 한해' 5자회담에 응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북한의 추가도발 여부 측각=향후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북한의 움직임이다.

일단 안보리 결의 내용이 당초 일본측의 초안에 비해 완화된 만큼 한반도 정세가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은 적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 '유엔 현장 7장에 따라'라는 부분이 삭제돼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한층 낮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핵 포함)와 관련된 각 종 조치를 나열한 뒤 "이 문제에 대해 유의하게 결정한다"는 문구로 마무리 됐다.

북한이 또 다른 도발행위를 강행할 경우 안보리도 추가 조치를

## ■안보리 결의안 비교

구 분	일본안	중국안	채택안
문제에 대해	일용	원용안함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책임이라 행동
계속 유의하			
기로 결정한	북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결정(Decide)	촉구(Call on)	요구(Demand)
다"는 문구로	제재인		
마무리 됐다.	미사일 및 관련물질 대북 수출금지 결정(Decide)	촉구(Call on)	요구(Require)
북한이 또 다른	북한산 미사일 구입 금지 결정(Decide)	촉구(Call on)	요구(Require)
도발행위를	모든 핵관련 활동 중단 6자회담 복귀 결정(Decide)	NPT(핵신금지조약),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복귀 촉구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 및 NPT, IAEA 협력 강력 촉구
강행할 경우	미사일 기술이전 금지		
안보리도 결의안의 성격	우연 회원국에 강제	제한적 강제성 부과	
추가 조치를	의원부과		

많다.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그나마 그동안 쌓아온 신뢰에 치명상을 입고 상당 기간 공전을 거듭하는 것은 물론 극한 대치를 이뤘던 과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사업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행사도 예정대로 추진해 남북관계의 모멘텀은 이어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대응방향은=북한의 직접 상대방인 미국의 강경 대응 의지는 어느 때보다도 확고해 보인다. 과거 클린턴 정부 시절 북한의 위협전술에 말려 이런 저런 타협을 한 결과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계속돼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절대 양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미국이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북한 설득에 주력해온 한국과 중국이다. 한국 정부는 최소한의 남북 체널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북한측이 보인 최근 움직임으로 볼 때 이 채널 역시 한동안은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최근 출시된 SONY의 명품들...

## 2006 소니 면디비 예술모상 드리



소니 광주전시판매점  
☎ 082-1622-2000

소니 풍력 서비스센터  
☎ 1588-14-2000



2년 전 분양가로 내 집 마련하세요!!

분양가  
1500만 원

분양가  
1500만 원

분양가  
1500만 원